

봄비처럼

2006. 봄비술새

세상을 어루만지다...



일 시 : 2006년 12월 17일 (일) 오후 6시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허 : 부산비술새예술단

입장료 : 전석 10,000원

문 의 : Tel. 051-751-3100 Fax. 051-758-3111

## 부산 버스새 예술단 대표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청용무 전수자



박 현석

## 모시는 글

저물어 가는 2006년 한 해를 아쉬워하며,  
웃음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마음에는 깊은 얼은 대지를 깨우게 하는  
봄비와 같은 따스한 기운을 담고,  
“봄비처럼 세상을 어루만진다.” 라는 창작 작품으로,  
버스새 공연을 올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밤이 깨어지면 아침이 밤아오듯이,  
다시금 나 자신과 더불어  
따뜻하게 주위를 감싸 안아으면 합니다.  
너와 내가 소리가 되고 그 소리가 몸짓이 되고,  
그 몸짓이 악기가 되고, 악기가 다시 소리가 되어  
한데 어우러져 멋과 흥으로 함께 감싸인 것입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과 바쁜 일정에도 열정을 다해 준  
버스새 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부산 시립무용단 단원

DANCE THEATER THEATER 集 대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중요 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전수자



안무 김미진

## 작품의도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끌어안고....

세상 모든 맘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부포, 상포, 악기들과

사람과 사람들...

서로를 끌어 안으므로

모두가 따뜻해집니다.

“버스새” 가 더욱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 작품내용

백 마디 말보다

나직한 손길 한번이

가슴을 포고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애써 태연하지 마세요.

풀레방아처럼 온몸으로 울어보세요.

조요히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마음을

쓰다듬어 보세요.

가끔,

아주 작은 손길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데워집니다.

봄비처럼.....

## 1장 외로운 시립들에게.....

2장 시글픈 사랑이여.....

시글픈 손길이여.....

3장 블레bbing이처럼.....

온몸으로.....

그렇게 온몸으로 운다.

4장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세상을 이루만지다.



## ◆ 출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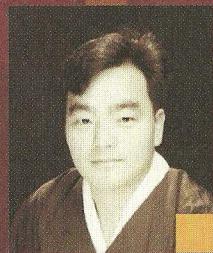
**조우혜**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전수자  
한국국악협회 부산지부 회원



**김태원**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이수자



**김한동**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이수자  
한글리그아이기 부산지부대표



**이창기**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박순호**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  
부산지방무형문화제 제6호  
부산농악 전수자  
울산시립무용단 단원



**양명희**

울산시립무용단 단원  
중요 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



**희태성**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현우**

부산지방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전수자  
동국대 국악과 재학중



**최의숙**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신영지**

초. 중등 국악 강사  
경성대 고교대학원 졸업



**김선희**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대학원 재학중  
금샘 국악관현악단 단원  
효연 국악관현악단 단원

## ◆ STAFF ◆



**김도연**

무대미술



**김옥희**

울산시립무용단 단원  
경성대 무용과 졸업



**김희진**

창원시립무용단 단원  
경성대 민속무용과 졸업



**김운호**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